

공교회성과 한반도 평화 화해 신학의 관점에서 본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의 길

1. 들어가는 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종말론적 궁극적 의미는 바로 그의 부활에서 확증된다. 모든 죄악과 사망의 권세에 대해서 단번에 유일회적으로 죽으시고 사셨다는 초대교회의 선포가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넘어설 수 있는 혁명의 능력이다.”¹⁾

지난 2022년 이후 남북의 적대적인 관계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 정부가 미국과 일본과 동맹을 강화한 이후, 북한과 중국, 러시아와의 갈등 구도가 첨예화된다.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의 4.27 판문점 선언이나 2018년 9월에 있었던 평양 선언이 사실상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하고, 더는 한반도에 평화의 길이 보이지 않는다. 한국 교회는 더는 공적 역할을 하지 못하고 뒷짐을 지고 있는 형국이다. 한국 교회는 개인구원의 차원을 넘어 한반도 안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을 앞당길 화해의 사역에 대한 책임이 있으나, 그 역할을 못하고 있다.

독일은 1990년 10월 3일에 통일을 한 후에 벌써 30년 이상이 흘렀다.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동서가 갈라졌으나 우리보다 엄청나게 빠른 시간에 분단을 극복했다. 물론 갑작스러운 베를린 장벽의 붕괴를 원인으로 삼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서독 교회와 서독 정부 사이의 지속적인 노력이 통일 앞당겼다. 동서독 교회는 계속해서 만났고 동독교회에 대한 서독 교회의 지속적인 후원과 관심이 통일의 기초가 되었다. 비슷한 길을 걸어왔으나 결과는 무척 다르다. 『독일은 어떻게 통일되고 한국은 왜 분단이 지속되는가』의 저자인 이인석은 한국과 같은 길을 걸었지만 다른 결과를 가져온 독일의 경우에서 한반도의 지속적인 분단에 이유를 발견하고 있다. 서독은 초기 한국 정부와 같이 동독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펼쳤고 그에 따른 경쟁 관계를 만들었다. “서독도 한국처럼 유일 합법정부를 주장했고, 1970년대 동독을 국가로 인정하면서 교류 협력이 강화되었다. 하지만 서독은 점점 동독이나 주변국과 공존을 모색했고 그에 따라 자신을 변화했다.”²⁾ 이에 반해 한국과 북한은 공존을 모색하기는커녕 서로에 대한 적대적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북한은 한국에 대해 무력도발을 계속하고 있고, 한국은 북한에 대해 경제적 위기를 바탕으로 흡수통일을 꿈꾸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흡수통일이 아니라 분단을 극복하는 경험을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찾을 것을 요청했다. 왜냐하면 한국과 북한은 한반도 안에서 공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지 않고는 평화 정착을 통한 통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독일 정부와 독일 교회가 함께 통일의 길을 모색해왔다. 독일은 주변국과의 관계에서 통일 우선 정책을 펼쳤다. 통일 우선 정책은 하나의 독일이라는 민족 정책을 바탕으로 주변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에 목적이 있었다. 서독은 서방국가와의 신뢰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소련과 동독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었다.³⁾ 동독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던 초기 아덴아우어 정부가 계속해

1) 박순경, 『과거를 되살려내는 사람들과 더불어』 (서울: 사계절, 2003), 505.

2) 이인석, 『독일은 어떻게 통일되고 한국은 왜 분단이 지속되는가』 (서울: 도서출판 길, 2019), 7.

3) 그에 따르면, “서독정부는 서방국가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독일은 과감하게 유로화 도입에 동의함으로써 경제적 손실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폴란드와의 사이에서는 오테르 나이세 국경선을

서 동독을 고립시키는 정책을 펼쳤다면, 사회민주당의 빌리 브란트는 동독을 국가로 인정하고 소련과 함께 유럽안보협력회의를 창설함으로써 미소 갈등 구조를 벗어나게 되었다.⁴⁾ 독일 총리 빌리 브란트가 폴란드에 사죄하고 소련과의 적대 관계를 청산함으로써 독일 통일을 위한 역량을 강화한다. 이를 바탕으로 서독은 동독과 함께 인적교류와 경제적 지원을 통해 통일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었다고 한다. 그 이후 양국 사이에 교류 협력이 활발해지면서 공존 관계가 뿌리를 내렸다. 게다가 동구권 붕괴와 함께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서독 총리 헬무트 콜은 동독에게 국가연합을 제안했고 동독의 동의를 끌어낼 수 있었다. 양국 사이에 교류 협력이 활발해지면서 공존 관계가 뿌리를 내리면서 경제적 우위가 빛을 발할 수 있었다. 독일과 다르게 남한과 북한은 핵을 둘러싼 북미 간 갈등에 지속적인 영향을 받았다. 그 사이에서 남한과 북한 서로에 대해 일방적인 의미의 통일을 강요해왔다. 그 결과 남한과 북한은 한반도 안에서 평화 정착을 요원하게 만들고 통일로 나아가는 길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물론 지난 20년 동안 남·북 사이의 지속적인 대화에도 불구하고 대화무용론이 있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이 공존하려는 의지를 갖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동서독 기본조약과 유사하게 1991년 화해·불가침 교류협력을 위한 남북 기본합의서를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여전히 북한과 적대관계를 내려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한국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까지 적대세력으로 만들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 한국교회는 지금껏 북한과의 화해를 시도해야 하고 독일 통일의 과정에서 놓칠 수 없는 독일교회의 화해 노력에 주목해야 한다. 독일 통일에 대한 교회의 노력을 부정하는 주장들도 있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부정할 수 없다. 실제로 독일 교회는 독일 정부와 발맞추어 동독교회와 계속해서 관계를 맺어왔고 교회의 공적 기능을 수행했다. 실제로 독일 평화운동을 주도한 것도 독일교회였다. 그것은 독일의 화해 신학으로서 공적 기능으로 인한 것이었다. 실제로 화해는 용서이고 관계 회복이기 때문이다. 한반도 평화 정착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정치적이고 신학적 요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과 북 사이에는 여전히 화해보다는 경쟁과 정치적 일방성만이 작용한다. 최근의 서로에 대한 정치적 태도는 대화보다는 선전포고 식의 대응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정치적 태도를 박영균은 “끊임없이 자기검열을 생산하는 억압을 동반하는 행위로 규정한다.”⁵⁾ 그에 따르면, 분단을 넘어서 통일을 사유하거나 말하는 것을 위험스러운 일이며, 끊임없이 나를 위험하고 끊임없이 죽음의 공포를 유발함으로써 이해 불가능한 타자로 만들어간다.”⁶⁾ 이와 같은 태도로 우리는 한반도에서 평화를 정착시킬 수 없고 통일에 이를 수도 없다. 상대방은 영원히 용서할 수 없는 ‘가인’과 같은 존재가 된다. 이에 대해 화해 신학은 근본적으로 악마화된 타자를 포용과 대화의 대상으로 만들 것을 요청한다. 물론 상대방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단지 대화와 소통을 불가능하게 하고 지금껏 애써왔던 노력들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 일이 될 것이다. 화해 신학의 관점에서 볼 때 한반도 평화정착의 길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본 글은 화해 신학의 길에서 그 가능성을 발견하려고 한다.

확정함으로써 자국 영토를 포기했다. 더 나아가 소련에 대한 정치적 지원도 약속했다.”

4) 앞의 책, 11.

5) 박영균, “분단의 아비투스에 대한 철학적 성찰,” 『분단의 아비투스와 남북 소통의 길』 (서울: 경진출판, 2015), 100.

6) 앞의 책.

2. 한국적 통일신학에 나타난 화해의 길: 한민족의 신학

이영빈과 박순경은 한국 신학으로서 통일신학을 모색한 선구자들이다. 그들은 통일신학의 길을 신학적으로는 화해 신학에 정초하였다. 박순경에 따르면, “내가 서울대 철학과 다니던 시절. 허혁, 이영빈, 나 우리 세 사람이 칼 바르트의 복음과 율법 그리고 사도신경을 번역하여 출판하려던 차에 6·25가 터져 그 번역들이 유실되었습니다. 또 나는 전쟁중에 서울 시가전이 벌어진 한복판에서 칼 바르트의 『죽은 자들의 부활』을 번역하면서 상세한 문법 설명까지 첨부하여 허혁과 이영빈에게 보내주려고 했습니다.”⁷⁾ 이영빈도 그 기억을 공유하고 있다. “나는 바르트 신학에 대한 공통관심을 통해 또 독학 서클을 통해 비로소 박순경과 자리를 같이 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여기에서 바르트 신학에 대한 공부와 토론이 본격화되면서 우리 세 사람은 바르트 신학을 한국 신학계에 소개하기 위해 그의 저서 몇권을 공동으로 번역하는 구체적 구상까지 하였다.”⁸⁾ 그들의 신학적 관심은 바르트에게서 출발하였고 자연스럽게 통일신학 형성과 통일운동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볼트만 신학으로 전향한 허혁과 달리 그들은 바르트 신학을 바탕으로 정치적 사회적 책임에 집중하였다. 이영빈은 주류신학이었던 냉전신학과 다르게 “인류의 공존과 평화를 지향하는 평화신학”을 추구하게 된다.⁹⁾ 그 후 이영빈과 박순경은 민족 통일의 문제에 교감을 가지게 되었고 바르트 신학의 공동 지평을 발견하게 되었다. 1981년 “통일을 위한 기독교자의 길”이라는 글에서 이영빈 목사는 통일신학의 첫 번째 과제로서 화해를 언급하면서 다음의 엠2:13-18 말씀을 인용하였다.

“이제는 전에 멀리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가 되어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이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 권속이라.”

당시 이영빈 목사는 통일을 위한 기독교자의 과제라고 하면서 하나님 화해를 강조했다. 기나긴 시간이 지난 지금 남 북간 군사적 대치가 강화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만큼은 민족 평화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변할 수 없는 예언자의 목소리로 들린다. 계속되는 서로에 대한 군사적 도발은 한국전쟁과 같은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통일신학이 화해 신학에서 출발해야 하는 변하지 않는 이유이다. 화해 신학의 기초는 그리스도의 화해이다. 그리스도의 화해를 통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해가 이루어진다. 이영빈에 따르면, “서로 무시하고 지배하려고 하고 피흘리고 원수관계가 된 36년 과거에서 오히려 배우고 이 옛것을 청사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도와주고 다시 동족이 되는 새길, 새출발을 하자는 것입니다.”¹⁰⁾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남과 북이 더 심각한

7) 박순경, “하나님 앞에서 살고죽고, 부활을 희망하리(고전 15:4),” 『과거를 되살려내는 사람들과 더불어』 (서울: 사계절, 2003), 521

8) 이영빈, “서울 감리교 신학교 시절,” 『과거를 되살려내는 사람들과 더불어』 (서울: 사계절, 2003), 26.

9) 앞의 책, 34-35.

이념의 감옥에 갇힌 상황이다.

화해 신학의 근본 동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이다. 하나님이 억압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하시듯이, 한반도 안에서 고통과 고난을 겪는 사람들을 해방하신다. 바르트나 판넨베르크와 같은 화해 신학자들이 주장하듯이 예언서나 혹은 묵시문학 전통에서 인자의 도래와 함께 실현된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화해는 구약성서 전체를 관통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열방의 구원을 의미한다. 신약성서는 막힌 담을 허무는 그리스도의 화해 사역과 더불어 도래하는 하나님 미래에서 새로운 존재로서 그 사역에 참여하게 하는 성령의 사역이 함께 공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바르트는 예수 그리스도를 화해로 이해한다. “화해는 하나님에 의해 완성된 인간과 함께 맺은 계약의 주장과 관철과 성취를 의미하며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든 인간과 맺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지와 성취된 사건을 의미한다.”¹¹⁾

화해 신학은 피지배자를 억압하는 지배자 계층의 실제적 변화에 있다. 화해 신학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회복을 지향하고 있으며 세계 안에서의 평화적 관계를 지향하고 있다. 적대감을 야기된 막힌 담을 허무는 일은 우리 내면에 내재화된 적대적 관계를 해체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껏 우리에게 북한은 “공산주의, 빨갱이, 공산괴뢰”와 같은 비속어로 이해되었고, 남한은 북한에게 미 제국주의의 앞잡이 같은 것으로 규정되었다. 지금까지 남한과 북한은 민족적 주체성을 인식하지 못했고 주변 열강에 의해 규정된 정체성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며 살아왔다. 이와 같은 현실성에서 이영빈과 박순경 교수는 한민족 통일운동에 있어서 바르트의 화해 신학의 토대로 통일운동을 발전시켰다. 박순경은 이영빈 목사와 “민족통일의지와 통일이념”의 출발점으로 바르트의 사회주의 해석에 근간을 두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¹²⁾

한편으로, 이영빈 목사는 하나님 혁명을 “낮은 자, 작은 자, 업신여김을 받은 자들의 편”에 서는 것으로 주장한다.¹³⁾ 그는 이와 같은 화해 운동의 길을 민족적 기독교의 길에서 찾았다. 일제강점기의 기독교의 모습은 민족적 기독교의 모습으로 보인 기독교 선교 초기와 달리 점진적으로 사적 종교로 전락하기 시작했다. 이영빈은 그 이유를 “민족과 민중과 신앙의 관계를 통일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신학을 형성하지 못한 데”에 있다고 보았다. 결과적으로 한국교회는 화해신학의 길로 나아가지 못했다. 그는 화해신학의 길을 종말론적 지평에서 찾았다. “한반도 공동체의 미래상은 새하늘과 새땅과 관계하는 개념이기에 그의 미래상은 종말론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¹⁴⁾ 그의 종말론적인 세계관은 일반적인 의미의 내세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마지막 실천의 장을 인식하는 데에 있다. 그의 생각에는 통일의 문제가 더는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으로서 우리의 마지막 실천적 과제이다. 그러나 그는 독일 모델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다. 첫째, 그는 한국의 통일이 전범국가인 독일의 통일을 따를 수가 없고 희생 국가의 입장에서 남북이 한민족의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른 한편, 우리의 주변국들은 한국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¹⁵⁾ 따라서 남한과 북한은 스스로 통일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다.¹⁶⁾ 그에 따르

10) 이영빈, “통일을 위한 기독교의 길,” 306.

11) Karl Barth, Kirchliche Dogmatik 4.1, 35.

12) 박순경, “통일의 길에서 다시 만난 친구,” 『통일과 기독교』, 33.

13) 이영빈, “하나님 혁명과 우리들의 책임,” 『통일과 기독교』, 74.

14) 이영빈, “한반도 공동체의 미래상, 새하늘과 새땅,” 『통일과 기독교』, 61.

15) 앞의 책, 63.

면, “한민족 공동체는 남과 북이 서로 다른 사회구조를 인정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려고 할 때 비로소 성립된다. 우리나라의 통일은 독일과 같이 흡수통일이 아니라 연방제 통일이 가장 현실적이다.” 물론 이영빈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 같이 독일의 통일을 흡수 통일로 이해하고 한국의 분단 상황에 적용할 수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남한과 북한은 전범국가로서 독일의 통일 과정과 다른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는 오랜 시간 동안 통일 후유증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연방제 통일 방안을 현실적으로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동서교회의 역할을 인정했다. 그에 따르면, 서독교회와 동독교회는 반공적 기독교와 자본주의적 기독교 사이의 적대적 관계를 완화해왔고 상호공존의 길을 모색해왔다.¹⁷⁾ 이 길은 평화와 정의를 위한 화해의 길이다.¹⁸⁾

다른 한편, 박순경은 통일신학의 출발점을 자기의 내적 체험에서 찾았다. “그리스도교와 공산주의는 만나야한다.”¹⁹⁾ 이는 친구로서의 만남이 아니라, 원수 된 상대방과의 만남이다. 그러나 심정적 울림에서 알아챈 하나님 음성이 구체적인 현실로 변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울림이 시작된 후 거의 30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그가 통일신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공산주의자로 오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통일신학의 길에 모든 것을 바쳤다. 그는 반공주의 노선에서 있던 한국교회를 비판하고 통일신학의 성서적 근거를 바르트와 같이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과 이스라엘의 민족 사회 건설에서 찾았다. 근본적으로 바르트나 몰트만이나 판넨베르크와 같은 바르트의 후계자들도 역사적 출애굽 사건을 화해 사건의 원형으로 이해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에서 한반도 분단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동기로서 “하나님 생명”을 강조했다. 박순경에 따르면, “하나님을 적대하는 세계 지배 세력들의 죄악 때문에 세상의 해방을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세상과의 중보자·화해자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세상과 화해하시고 교회에서 화해 사역을 부여하셨다.”²⁰⁾ 화해의 길은 민중과 여성과 민족의 해방을 지향한다. 박순경은 제 2 이사야에서 나타난 고난의 종과 야훼의 종에서 출발하게 되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보편사적 토대로 이해한다.²¹⁾ 특히 바르트가 주장한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은 곧 창조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열방에게 확대되고 있는 종말론적 사건으로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 역사에서 지키고 계심을 보여준다. “그러한 구원의 보편사적 의미는 일본을 비롯한 세계 열강 아래에서 고난 받은 우리민족사를 구원사적으로 재조명할 수 있는 빛을 비춰준다.”²²⁾ 따라서 박순경은 한민족이 직면하고 있는 고통의 역사를 성서 언약의 측면에서 재조명하고 있으며 일제강점기나 분단 시기에 일어난 민족의 고난을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의 동일성을 발견하고 있으며 동시에 그의 부활사건이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민족 해방 동시에 한반도 내에서 발생하는 불의한 지배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로 확대 해석하고 있다. 그것은 이레네우스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한민족에 대한 그리스도의 총괄갱신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박순경은 근본적인 한국교회의 문제가 반공주의의 강화와 그에 따른 부자유에 있음을 보여

16) 앞의 책, 64-5, 그는 7.4남북공동성명에서 주장하는 3대 원칙을 인용하며 민족 자결의 원칙과 평화적 방법을 통한 민족 대단결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17) 이영빈, “첫번째 통일대화를 시작하며,” 『통일과 기독교』, 203..

18) 앞의 책, 121.

19) 박순경, 『과거를 되살려내는 사람들과 더불어』 (서울: 사계절,),

20) 앞의 책, 506.

21) 앞의 책, 503.

22) 앞의 책, 503.

주고 있고 그곳에 벗어나야 할 당위성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 박순경은 적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서 정치적 해방에서 벗어나는 힘과 그에 따른 한반도의 평화가능성을 모색한다. 그러므로 박순경의 통일신학은 한반도 내에서의 화해의 과제를 배제하지 않는다. 그가 주장하는 민족의 화해는 자본주의에서 민중의 해방과 더불어 여성의 해방을 민족의 궁극적 해방의 문제로 발전시켰다. 그 과정에서 그는 서구 근대적 민족주의를 비판하고 피해자로서 한민족을 자본주의의 억압에서 자유롭게 하고 그를 통해 투쟁과 해방이라는 민족주의 새로운 개념을 발견한다.²³⁾ 그에 따르면 “민족은 민족사 전체에 걸쳐 형성된 주어진 영토에서 혈연과 문화적인 삶의 공동기반으로 형성된 사회집단의 한 단위로 규정할 수 있다.”²⁴⁾ 따라서, 박순경은 이와 같은 근대적 민족주의 한계를 극복하고 오히려 민족은 하나님 화해에 의해서 새롭게 규정된다는 것을 발견한다. 투쟁과 해방은 곧 한민족의 폭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화해에 의해 규정된다. 박순경은 우리의 민족사에서 좌우합작에서 찾고 있다. 그에 따르면, “신간회(1927-1931), 항일 운동을 위한 좌우 연합전선, 해방 후 인민공화국, 좌우합작 운동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특별히 그는 냉전의 시대에서 계속해서 구조적 불평등과 비인간화를 일으키는 자본주의에 저항하고 민족, 민중, 여성의 평등권을 획득하는 데에 민족개념의 의미를 찾았다.²⁵⁾ 그가 북한 체제를 수용했던 것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맹목적으로 추종한 것이 아니라, 민족 해방을 풀어갈 동반자로서 화해의 대상으로 보았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3. 통일신학의 실천 과제로서 남한과 북한의 화해 가능성 모색

3.1. 독일에서의 통일운동: 이영빈

이영빈은 박순경과 같이 독일에서 한민족의 문제로서 통일문제를 바라보았다. 그는 1973년 재독 한국 그리스도인의 선언을 통해 정치적이고 경제적 억압에 놓여 있는 한민족의 현실을 폭로하고 한국 그리스도인들과 연대를 모색하였다. 또한 민주민족통일해외한국인연합회²⁶⁾에 참여했다. 그는 이 공동체가 추구하는 민주, 민족, 통일의 원칙에 동의하면서 남북화해의 문제를 통일신학의 문제로 인식하였다. 특히 그는 화해 신학을 기반으로 민주화 운동과 함께 가야 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그는 “1980년 이후 기통회를 조직하고 1985년까지 4차례의 북한 그리스도인과의 대화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²⁷⁾ 그의 통일운동의 방향은 궁극적으로 남북한 화해에 있었다. 이는 전통적으로 남북한이 서로를 악마시 함으로써 통일을 어렵게 만들어왔지만, 상호 인정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수용하고 화해함으로써 이념적 차원

23) 앞의 책, 508.

24) 앞의 책, 508.

25) 앞의 책, 510.

26) “1978년 7월 19일 한민통이 주도가 되어 미국, 캐나다, 유럽지역의 민주운동선배들(임창영, 김성낙, 최홍희, 윤이상, 배동호)을 규합하여 만든 단체이다,” 이영빈, 『경계선』 (서울: 신앙과 지성사, 2005), 249.

27) 이영빈, 『경계선』, 250.

의 분단을 극복하려는 것이다. 거기에 근대적 민족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족해방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민족주의를 구성하려는 것이다. 홀로코스트의 희생자인 유대인과 그들이 거주하던 폴란드에게 사과하고, 소련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유럽연합의 동기가 되었던 가해자로서 독일 민족주의와 다르게, 이영빈은 나사렛 예수의 해방을 토대로 모든 민족 구성원의 해방을 추구하는 통일신학을 추구했다. 이는 자본주의 비판을 통해 상대방이 추구하는 가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대화의 태도를 보인다. “기독자들이 예수의 복음을 가난한 자들의 해방으로 이해하고 민중과 연대한다면 기독교의 남한과 사회주의 북한은 서로 혈통과 손가락질 하는 대신 서로 존중하고 배우고 협력하는 평화적 대화가 실현되고 참된 남북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²⁸⁾ 이영빈의 통일운동의 배경에 독일의 평화운동과 반전운동의 영향이 있었다.²⁹⁾ 미소 중심의 냉전체제 사이에서 그는 평화운동과 통일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했고 서독교회와 동독교회 사이의 대립 관계를 극복하고 상호주체적으로 공존을 모색하였다. 더 나아가 북한 그리스도인들과의 화해를 모색했다. 이와 같은 그의 시도는 동독교회가 사회주의의 개혁으로 운동을 추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평화운동이니 반전운동이 정치적 분단의 한계를 넘어서는 토대가 된 것이다. 또한 이영빈은 동독교회를 돕는 서독교회의 일방적 관계를 벗어나 “냉전의 완화, 평화적 공존문제, 핵전쟁 반대”를 위한 동서독교회의 상호동등한 관계를 형성하려고 했다.³⁰⁾ 그는 그와 같은 경험을 독일에서 한반도 평화정착과 민족 주도의 통일운동을 전개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그는 그의 자서전의 이름처럼 경계선을 넘는 일이었다. 이는 그가 우리가 이해하듯이 이념 중심의 사람이 아니라, 실천 중심의 통일운동가임을 알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는 1980년에 한민련 회원들을 중심으로 조국통일해외기독교자회를 조직하고 남북화해의 길을 모색하였고 북한을 방문하여 사회주의자들과의 대화를 시도했다. 1985년내 이르는 기간 사이에 4차 대화를 하였다. 그러나 기통회 중심의 통일 대화는 지속되지 못했다고 한다.³¹⁾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영빈은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깨닫게 된 독일교회의 통일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노력에서 그 길을 발견하려고 했다. 그들은 동독의 사회주의 현실을 직시하고 사회주의와 기독교의 극단적 대립 관계를 극복하고 공존으로 나아가려고 했다. 이영빈은 통일운동의 동역자들과 함께 북한 그리스도인과의 관계회복을 모색한다. 그 배경에는 7·4남북공동성명이 있었다. 그들이 제시한 통일의 원칙은 “종살이에서 해방하는 출애굽의 하나님 약속과 갇힌자와 억눌린 자를 풀어놓아주는 예수의 복음에 근간을 두었다.”³²⁾ 이는 한반도의 통일 한반도에서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궁극적 해방의 길임을 의미하고 동시에 원수와의 화해를 의미한다. 이는 이영빈이 박순경과 같이 7·4 남북공동성명을 바탕으로 민족 자결의 원칙을 바탕으로 민족 대단결을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물론 당시에 한국 KNCC와 한국교회는 이와같은 통일운동의 길에 우려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조국기독교 연맹과 만날 기회가 되었다고 한다.³³⁾

28) 이영빈, 『경계선』, 270.

29) “1981년 10월 10일과 1982년 6월 10일에 가장 큰 평화데모가 수도 본에서 있었다. 25만명과 35명의 시민들이 모였고 1983년 10월에는 나토의 미사일 추가 배치하는 것에 반대하여 반전반핵 행동주간으로 정하고 각 지역에서 수많은 행사가 진행되었다. 개신교 교회들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기’라는 반전 반핵 운동을 펼쳤다” 앞의 책, 193.

30) 앞의 책, 200.

31) 앞의 책, 252.

32) 앞의 책, 267.

33) 앞의 책, 276-277.

3.2. 박순경의 통일신학의 길로서 화해의 길

박순경은 통일신학의 근간을 한민족으로서 정체 형성과 더불어 민족이 직면한 다양한 억압의 문제를 극복하고 세계변혁으로 나아가는 데에서 찾았다.³⁴⁾ 박순경은 7·4남북 공동성명에서 2000년 6·15 선언에 이르기까지 민족통일의 문제를 남한과 북한의 정치적 문제로 이해했다. 그래서 그는 남과 북의 화해 신학의 가능성을 정치적 신학으로 확대하였다. 그는 7·4 남북공동성명(1972)에서 나온 북한이나 남한 주도의 일방적 의미의 흡수통일을 거부하고 민족 동질성을 바탕으로 하는 제 3의 통일의 길을 적극적으로 수용했고 그에 따른 정치적 태도를 발전시켰다. 이를 바탕으로 그는 NCC주도의 통일선언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갖는다.³⁵⁾ 선언은 “민족 자주, 평화 우선, 민족 대단결 신뢰와 교류 우선의 원칙, 민주적 참여원칙, 민중 우선의 원칙, 인도주의의 원칙과 인도 우선의 원칙을 제시한다.”³⁶⁾ 이삼열박사는 88선언의 의미를 정부 주도의 통일정책 일반도에서 벗어나 한국교회 주도의 통일정책 수립과 더불어 굳어진 분단체제를 극복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하려는 통일 의지를 담았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남북 간 화해의 모색은 근본적으로 이영빈이 추구해온 민족의 화해를 바탕으로 하는 통일운동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박순경은 88선언에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로 나아가는 정치적 형태의 통일방안이 부재함을 지적한다.³⁷⁾ “이 선언문은 평화통일을 위한 기도 주일, 평화통일을 위한 기도문 작성, 평화통일의 희년을 선언하고 정치군사적 문제로서 남북 평화협정, 미군 철수, 핵무기 철폐를 표명하고 남북한의 재반 교류를 언명하면서 구체적인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한 중립화가 요구된다. 남한의 안보 군사 체계는 북한만을 표적을 한다는 통일방안에 상당히 접근하나 여전히 1970년대 기능주의적 통일방안을 넘어서지 못한다. 이 방안에 따르면 비정치적 문화, 경제, 스포츠 교류등을 우선하자는 것이다.”³⁸⁾ 그러므로 박순경은 7·4 남북 공동성명의 원칙을 추구하면서 통일운동의 제3의 길, 즉 중립의 길, 민족 대화합의 원칙을 주장한다.³⁹⁾ 박순경은 민족 대화합의 원칙이 근본적으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초월하여 극복하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심의 통일방안이다. 그것이 제3의 길이 신학적 근거를 가지는 이유가 된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교회는 올바른 자유와 영성을 형성하고 더 나아가 물질의 질서를 세울 수 있다고 한다.

박순경은 1989년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에서 탈각된 민족 대단결의 원칙을 강조해왔다. 그에 따르면, 민족 중심의 통일정책은 근본적으로 외세에서 벗어나 민족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새로운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한다. 또한 평화의 원칙과 관련하여 박순경은 군사적 독립성을 상실하고 병참 기지화되고 있는 한반도를 전쟁의 위기와 핵전쟁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할 것을 주장한다. 따라서 그는 “평화협정 체결과 더불어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한미 연합 사령부의 해체와 군축만이 평화통일의 여건”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⁴⁰⁾ 그러나 그가 바라본 남북관계에 경험적 인식에 따르면, “지금껏 계속해서 한미 상호방위조

34) 박순경, 『통일신학의 여정』, 65.

35) 88 선언은 1988년 2월 서울 연동교회에서 열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회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한국교회의 신학적 입장을 세우고 그에 따른 정책을 협의한 공동선언문이다.

36) 이삼열, 『평화체제를 향하여』, (서울: 동연, 2019), 61-65.

37) 앞의 책, 65.

38) 앞의 책, 299.

39) 앞의 책, 300, “제3의 길은 남·북의 제도들을 부분적으로 극복하고 부분적으로 종합시켜 제3의 새로운 민족 사회가 탄생하는 그날을 가리킨다. 여기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국가 정치형태로는 어떤 형식의 연방제가 요청된다.”

40) 박순경, “통일의 가시밭길” 『통일신학의 미래』 (서울: 사계절,). 333

약에 얽매어 남한이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주도권을 행하지 못했고 북미간 평화협정에 있어서 계속 협정 당사자의 권리를 빼앗겨 왔다.”⁴¹⁾ 따라서 박순경은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의 길에 있어서 민족대단결의 원칙을 강조하고 그에 따라 다양한 이념과 체제를 포괄하는 의미의 민족 국가를 지향한다. 이 기본적인 입장에서 그는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흡수 통일에서 찾고 있으며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개혁의 과제를 제시한다.

그는 2000년의 김대중 정부 하에 이루어진 6·15남북공동선언에 주목한다. 6·15 남북공동선언은 1998년 김대중 정부가 햇볕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남북이 화해하고 교류협력을 통해 북한의 적대적 태도를 변화시키고 평화를 정착함으로써 통일을 이루려는 소통과정에서 나온 선언이다.⁴²⁾ 2000년 6월 13-15일 남북정상회담에 의해서 결의된 선언으로서 6·15 남북 공동성명은 전문은 다음과 같다.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⁴³⁾

남북공동선언의 특징은 7.4 남북 공동선언과 같이 남북통일의 문제를 자주적 문제로 인식한다는 데에 있다. 근본적으로 반민족주의적 상황을 극복하고 상호체제를 인정하는 민족과 평화를 바탕으로 남한과 북한이 함께 이루어갈 평화통일의 길을 모색한다. 이는 서로간의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고 민족 공동체 의식을 함양함으로써 서로 공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실제로 10·4남북정상선언(2007), 2018년 4·27 판문점 선언과 9·18 평양 선언으로 계승발전되어 오늘에 살아 있습니다.”⁴⁴⁾ 이와 같은 합의는 남북이 서로 상대방에 대해 꿈꿨던 흡수통일이나 공산주의적 통일이 아니라, 한반도 분단 이후 직면하게 된 민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선언들의 기초가 된 6·15남북공동선언을 박순경은 어떻게 바라보았을까?

박순경은 6·15 남북공동선언을 민족 위기를 넘어서는 중요한 계기로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남북공동선언의 실현 가능성이 남한의 반통일 세력과 미국의 적대정책에 가로 막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일문제에 대한 한국교회의 무관심을 지적했다. 이러한 점들은 오늘날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 게다가 요즘은 젊은 세대들 중심으로 확장하고 있는 통일 무용론이 통일운동의 당위성을 흔들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지금은 서로에 대한 적대시 정

41) 앞의 책, 333-334.

42) 임동원, “6·15 남북정상회담 19주년 기념 학술회의 기조 강연,”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6·15의 해법』, 192.

43) https://www.i615.net/sub/declaration_3.php.

44) 박명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6·15의 해법』, 197.

책이 확대되고 있고, 군사력과 핵무장을 바탕으로 군사적 우위를 점유하려는 군비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박순경은 북의 체제 안정보장에 대한 요구가 묵살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점점 한반도에 평화정착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한반도에서의 전쟁도발 가능성을 확산하는 일로 보았다. 그는 한반도 안에서 6·15선언의 상호공존을 바탕으로 하는 적대시 정책의 폐기만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유일한 길로 평가한 것이다. 당시 현재 바이든 정부와 같이 그는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한의 화해에는 어떠한 관심도 없고 한반도를 병참 기지화함으로써 한반도를 정치적 희생물로 만들려는 정치적 야욕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그는 제 2항을 고찰하면서 통일방안이 지닌 시대적 의미를 모색한다. 김정일이 수정 제안한 낮은 의미의 연방제와 남측의 연합 제안의 종합을 재고한다.⁴⁵⁾ 그는 그 안에 여전히 존재하는 흡수 통일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으며 그가 줄기차게 주장해온 새로운 민족주의 배치될 수밖에 없음을 비판한다. 여전히 민족 주체성을 지향하지 못하는 통일은 새로운 지배구조에 갇힐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박순경의 민족주의는 민족·민중·여성의 해방을 지향하며 그 걸림돌을 제거하는 희생자 중심의 민족주의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한국교회의 책임으로서 화해 사역을 주장하고 있으며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해방 공동체의 도래이며 동시에 무고한 희생의 종말로 규정한다. 박순경은 그 성서적 근거를 다른 화해신학자들과 같이 출애굽 사건과 가난한 자의 해방과 억눌린 자의 해방을 선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찾았다. 로마 제국에 대항하여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회개를 선포하신 예수와 같이 한국 교회는 분단을 고착화하려는 분단 세력에 맞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⁴⁶⁾ 이것이 박순경의 통일신학의 책임과 과제이다. 그렇다면 한반도 평화정착과 평화통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교회의 역할은 무엇일까? 북한과 남한이 적대적인 관계를 청산하고 한민족으로 살아가는 일이 가능할까? 독일의 통일은 일방적 흡수 통일이라기 보다, 지속적인 국가와 교회의 화해 사역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겉으로는 흡수 통일의 결과를 보이고 있으나 통일을 위한 교회의 역할은 컸다. 따라서 그는 통일신학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분명한 정치적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4. 남과 북의 화해의 길: 남북의 정치적이고 신학적 대화

현재 정부가 추구하는 통일방안은 자주, 평화, 민주 원칙에 따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다.⁴⁷⁾ 통일부에 따르면, 이 원칙은 노태우 정부의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을 김영삼 정부가 수용하고 그 이후 김대중,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고 한다. 그러나 여전히 경제력과 군사적 우위를 바탕으로 하는 흡수 통일의 길은 남한이 추구하는 기본적인 통일의 방향이 되었다. 민족이 더는 통일의 주체로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우리는 어디에서 통일의 길을 발견해야 하는가? 이 물음에 대해 박순경과 이영빈은 여전히 의미 있는 답변을 제시한다. 첫째, 그들은 민족 대단결을 우선시한다. 민족은 고난당하고 억압당하는 이들의 연대와 해방을 의미한다. 고난의 궁극적 해방이 통일로 나아가는 길이다. 따라서 그들이 함께 추구해온 민족은 과거사에서 비롯된 혈연

45) 박순경, “통일신학의 회고와 전망,” 『과거를 되살려내는 사람들과 더불어』 (서울: 사계절, 2003), 519.

46) 앞의 책, 520.

47) <https://www.unikorea.go.kr/unikorea/policy/Mplan/Pabout/>

중심의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말론적 미래에서 가시화된 민족이고 민족 위기에서 촉발된 민족이다. 역사적으로 항일 운동에서 나타나듯이, 지금껏 한민족은 정치적 억압에 따른 민족의 고난에 대해 저항했다. 박순경은 민족·민중·여성 해방에 하나님의 해방 의지가 있음을 깨닫는다. 하나님 해방은 민중이나 여성 어떠한 존재도 배제하지 않고 해방된 한민족의 주체성을 세운다. “한국신학자는 그가 민족을 대표할 때 그는 민족이요 민중과 여성을 대표할 때 민중과 여성이니 남자이든 여자이든 그는 민중·여성이다.” 박순경은 해방된 주체로서 민족의 문제를 강조하고 있다. 통일신학으로서 화해의 길은 “한민족의 역사를 하나님 구원 종말론적 구원의 빛 아래에 세우는 일”이 된다.⁴⁸⁾ 박순경은 이를 “성령의 빛 아래에서 민족·민중·여성이 한민족 신학, 즉 한국신학, 통일신학의 주체”를 인식하는 과정으로 이해한다.⁴⁹⁾ 이영빈도 정치적인 항일 운동에서 민족해방의 동기를 찾았고 하나님의 혁명을 주장했다. 그가 주장하는 하나님 혁명은 자본주의 하에 민중의 억압을 용인하지 않고 어느 누구에게도 희생을 강요할 수 없는 사회변혁의 도래에서 발견된다. 무엇보다 “지배당해왔던 자가 지배자가 됨으로써 억압당하는 민중을 재생산하지 않는 해방된 민중이 주체”가 된다.⁵⁰⁾

둘째, 박순경과 이영빈은 자신의 통일론을 남한과 북한의 첨예한 대립을 극복할 수 있는 정치적 타협에서 찾았다. 남북 연합과 연방제 사이에서 그들은 상호공존을 모색할 수 있는 연방제에서 그 길을 찾았다. 왜냐하면 남한과 북한의 체제대립은 곧 서구 열강에 의해 강요된 분단을 고착화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사회주의와 계속해서 대화를 시도하면서, 비판적 태도를 놓지 않았다. 사회주의가 한반도에 일어나는 역사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부분적으로 일시적인 길은 될 수 있으나 궁극적인 길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반공주의에 기초를 둔 흡수 통일 전략 또한 궁극적인 통일의 길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은 세속적인 국가 중심의 통일정책의 한계를 지적하고 하나님 나라의 초월성을 강조한다. 박순경에 따르면, “제3의 길로서 하나님 나라의 초월성은 한국 민족과 제3 세계의 종립의 길 이상이며 역사의 종말론적 구원을 의미한다. 그러한 종말론적인 제3의 길은 궁극적으로 화해의 길이다. 남북한의 화해의 길은 민족적 동일성에 기초하되 그러나 민족 안에서 사회적 평등 없이는 성취되지 못한다. 남북한의 화해의 길은 어떤 의미로 어떤 조건으로 열리든 간에 그것이 피지배 민족들과 민중을 자유롭게 하는 길로서의 표본이 되어야 하리라.”⁵¹⁾ 이 길을 박순경은 구원사적 맥락에서 발견한다. 통일의 길은 곧 하나님 미래의 종말론적 도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흡수 통일이나 공산주의 중심의 통일이 그 미래를 대치할 수 없다. 설령 한반도에 통일이 도래한다고 하더라도 한반도 안에 여전히 억압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한, 한반도 통일은 미완성이기 때문이다. 그에 따르면, 한민족 통일을 지향하는 길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스스로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 이 땅에 오시고 그 땅을 평화의 땅으로 규정하신다.⁵²⁾ 따라서, 평화의 땅, 한반도에서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평화와 통일의 과제를 수행해야 하고 항일 운동에서 발전했던 민족운동으로서 통일운동에 참여해야 하는 것이다. 박순경은 이를 한민족의 역사적 과제로서 인정한다. 그 길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과의 계약을 통해 민족의 구원과 해방을 추구했듯이, 한민족이 분단을 넘어 분쟁과 전쟁의

48) 박순경, “통일신학의 정초를 위하여,” 『통일신학의 여정』, 63.

49) 앞의 책, 69.

50) 이영빈·김순환, “하나님의 혁명과 우리들의 책임,” 『통일과 기독교』, (서울: 고난함께, 1994), 74.

51) 박순경, “한국민족과 기독교의 문제,” 『민족통일과 기독교』(서울: 한길사, 1986). 51.

52) 앞의 책, 97-98.

씨앗을 없애고 종말론적인 평화를 구현하는 길이다. 이 길에서 세속적인 의미의 정치운동은 그 한 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박순경은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의 길을 민족의 자주성 혹은 주체성의 실현하는 역사적 과제로 이해하고 이념적으로 편향된 통일이 아니라, 민족 주체를 바탕으로 하는 민족·민중·여성통일론을 주장한다. 이를 위해 박순경은 민족 분단을 일으키는 이념적 갈등을 극복할 것을 요청한다. 화해는 한민족 전체가 추구해야 하는 민족 자립과 화해를 위한 길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적화통일도 남한의 자본주의적 북한 흡수도 아닌 양자를 일단 긍정하는 형식으로 연방 공화제가 가장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⁵³⁾ 그에 따르면, 민족 중심의 통일의 길은 근본적으로 탈서구화를 바탕으로 하는 한국적 기독교의 시도이며 새로운 민족 중심의 신학, 즉 하나님 나라와 그의 구원을 지향하는 하나님 미래의 도래를 추구하는 일이다. 박순경은 하나님 미래가 도래하는 과정에서 “상호비판, 상호개혁, 상호보완, 경제협력과 문화교류, 군축과 공동안보를 위한 군사 개편, 한반도 비핵화와 같은 정치적 태도의 변화를 통해 제3의 새로운 통일된 민족사회체제”를 형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⁵⁴⁾ 게다가 1992년 당시 그는 남한 정부 주장하는 연합단계나 북의 연방제 사이에 유사성을 지적하면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화해에 이르는 김영삼 정부의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의 유의미성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이는 그의 통일신학이 자연스럽게 이후 정부에서 남북간 화해의 길을 모색하는 데에 중요한 의미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정부의 통일방안에서도 기본적 화해와 협력, 더 나아가 공존을 모색한다. 따라서 한국교회는 한국 정부의 통일원칙에 따라 북한을 적대시하는 원칙에서 벗어나 새로운 민족의식의 형성과 화해의 과제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영빈은 북한 기독교 지도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통일 대화를 시도했고 이를 바탕으로 남북 공존의 길을 모색하였다. 이와 같은 시도는 자연스럽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민간차원에서 조국기독교 연맹과 관계를 맺고 공식적으로 접촉하고 평화적 관계를 모색하는 계기가 된다. 또한 북한이 남측 기독교와 관계 개선을 통해 기독교 정책을 바꾸었다. 그도 북한과의 일방적인 흡수 통일을 반대하고 민족성 회복을 지향하는 통일원리를 강조하였다. 이는 독일 통일에서 흡수 통일의 한계를 지적하고 끊임없는 통일 후유증을 막아야 한다는 통일인식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통일을 위해서 서로가 다른 체제 하의 경험들을 수용하고 이를 타산지석 삼아 우리 민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함을 강조한다. 그가 바라보고 있는 통일 이후의 독일 상황에 대한 인식은 더욱 이를 뒷받침한다. 독일 통일 후 10년이 지난 독일의 모습은 여전히 통일 후유증을 앓고 있는 모습이다. 물론 지난 2015년 독일은 통일 후유증에서 벗어났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했지만,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동독지역의 주민에게 씌워졌던 체제 실패의 낙인이 사실상 서로를 수용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영빈은 그 당시 동독의 급격한 자본주의화에 따른 실업자의 증가와 사회문제의 급증과 함께 더불어 통일비용의 증가에 따른 사회 보장제도의 축소등을 지적했다.⁵⁵⁾ 이와 같은 통일동독의 위기는 계속해서 새로운 경계선을 만들었다. 이영빈은 독일의 흡수통일을 타산지석 삼아 우리의 통일 정책을 새롭게 모색할 것을 요청했다.

53) 박순경, “민족통일의 신학적 근거와 전망,” 『통일신학의 여정』, (서울: 도서출판 한울, 1992), 175.

54) 박순경, “통일의 가시밭길.” 『통일신학의 미래』, (서울: 사계절, 1997), 307.

55) 이영빈, 『경계선』, 331.

나가는 말

지금껏 통일신학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박순경과 이영빈의 민족 중심의 통일론을 살펴보았다. 한국과 독일이라는 서로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었지만, 남한과 북한 사이의 화해와 더불어 ‘민족 대단결’이라는 원칙에 바탕을 둔 한민족 통일론을 전개했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특히 민중과 여성 해방 없이는 민족통일이 불가능하다고 보았던 그들의 통일론은 계속해서 서로에 대해 대립각을 세우고 흡수 통일에 대한 동상이몽을 가지고 한반도 평화 정착과 한민족 통일에서 멀어지고 있는 현재 상황에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 2000년 이후 계속된 2차 연평해전, 연평도 포격과 같은 북한의 도발은 일촉즉발의 한반도 위기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으며 끝없는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한반도를 평화지대로 만드는 남북 간의 관계 회복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기 위해서 주변국과 새로운 관계 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 도래하였다. 그러한 점에서 민족 대단결을 바탕으로 하는 화해 신학적 태도들을 재조명해볼 필요가 있다.

첫째, 한국교회는 여전히 북한에서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민중, 여성, 어린이의 고통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지금도 계속해서 북한의 인권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우호적 태도를 과연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예를 들어 6·15 선언을 한故김대중 전대통령도 억압당하고 있는 북한 사람들의 문제를 현실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⁵⁶⁾ 그에 따르면, “북한의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남북관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는 남한이 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은 북한의 식량난을 덜어주는 등, 북한 주민들의 경제적 처지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⁵⁷⁾ 이는 통일에 대한 막연한 생각이나 이상적인 생각만으로는 통일에 이를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그는 독일 브란트 전 총리의 통일정책을 실용적인 측면에서 수용했다.⁵⁸⁾ 한국교회가 북한과 주변 국가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 평화지대를 만들어가는 일이 중요한 정치적이고 신학적인 과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사실상 햇볕정책의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남한과 북한 사이의 교류는 사라지고 서로에 대한 마음의 장벽은 더욱 높아졌다. 게다가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거센 상태이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한국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 한국교회가 북한 주민이나 북한 이탈주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영빈이나 박순경이 시도했던 기독교와 마르크시즘의 대화는 바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했던 신학적 시도들이었다. 이념의 갈등과 서로에 대한 악마시하는 대결적 구조에 갇혀 있는 한, 한국교회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도 긍정적이지 않은 않다. 기독교와 마르크시즘이 서로 성호관계적 대화를 통해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그를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한국교회는 화해의 여지를 찾을 수 있다.

둘째, 한국교회는 남한과 북한의 통일 체제의 기초를 화해와 평화에 두었다. 이와 같은 통일의 길은 한반도를 평화지대로 삼는 것과 또한 주변 국가와의 관계 개선을 전제로 한다. 주변 열강으로부터의 관계 개선 없이 북한과 남한은 만나서 대화와 소통을 할 수 없기 때문

56) 앞의 책, 14.

57) 앞의 책, 14.

58) 최영태, “김대중의 평화사상,”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6·15해법』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출판원, 2019), 7.

이다. 따라서 한국교회는 좌우의 이념적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화해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회복된즉 화목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롬5:10) 화해의 길의 모색은 한반도에서 통일을 위한 한국교회의 일치에서 시작될 것이다. 김대중의 6.15 공동선언의 중요한 의미는 서로의 일방성을 내려놓고 서로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다는 데에 있다. 서로가 상대방에게 주장하고 있는 바에서 한발 물러서서 민족 화해의 문제로서 이해하기 시작하는 데에서 공존과 상호협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남한과 북한이 자신의 견해에서 한 걸음씩 물러나 절충하고 서로를 인정하는 데 의미를 두었던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국교회가 먼저 남한과 북한 사이에 존재하는 막힌 담을 무너뜨리는 일을 해야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이념 중심적 대화가 아니라, 현실적인 주제로의 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를 위해 한국교회가 더 적극적으로 화해 운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

셋째, 한국교회는 지금의 상호대립적 구도에서 벗어나기 위해 독일의 통일과정과 후유증을 극복했던 독일교회의 노력을 타산지석을 삼아 동일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동독교회가 통일되기 이전에 평화기도회나 민주화를 위한 시위가 활성화 되었다. 정인웅은 기도회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첫째 교회가 기도회 장소를 개방함으로 공중과 관련된 생각과 문제점들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게 한점, 둘째 평화기도회는 언제나 성경말씀의 전파와 연결되어 있었다는 점, 고통받는 자들의 실제적인 경험들의 진술이 함께 동반된 모임이었다. 셋째 비폭력에 의한 변화를 요구하는 기도였다는 점, 넷째 초교파적인 교회 연합의 성격을 전제한 기도 모임이었다는 점, 다섯째 교회의 공간은 언제나 국가권력의 폭력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장이 되었다는 점이다..”⁵⁹⁾ 이와 같은 동독교회의 변화는 끊임없이 손을 내밀고 계속해서 변혁을 요구했던 서독 교회의 끊임없는 관계개선의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가 안된 독일의 흡수통일이 엄청난 경제적 문제를 일으킨 점을 생각해본다면, 한국교회의 통일을 위한 지속적인 준비와 노력이 필요함을 깨닫게 될 것이다. 한국교회가 인내심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손을 내밀고 관계개선의 의지를 가진다면 남한과 북한이 계속해서 대립의 관계에서 벗어나 화해의 관계를 모색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그 과정에서 한국교회는 자신의 공교회성을 분명히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59) 정인웅, 『독일교회를 통해 배우는 한국교회의 통일노력』 (서울: 범지출판사, 2015), 142-143